

#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K-DX' 정식 가동 통합된 데이터 시각화...전략적 의사결정 지원

김민영 기자 myk5060@khu.ac.kr

대학 운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K-DX 빅데이터분석시스템'이 도입됐다. 교직원과 연구자는 K-DX를 행정 및 연구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시스템은 추후 개발 예정인 학생성장 플랫폼과 연계할 예정으로, 학생들도 취업/진학, 장학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DX추진단이 13일 정식 오픈한 해당 시스템은 교직원 및 연구자 효율성 향상과 전략적 의사결정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됐다. 기존 시스템은 부서별 업무 처리 중심으로 설계돼 교무, 학사, 산학, 연구 등 주요 데이터가 파편화되는 '데이터 사일로' 현상이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대학 전체의 현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거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K-DX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구축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다. 산재된 데이터를 하나의 창구로 통합해 시각화함으로써, 경영진과 의사결정자들이 필요한 정보에 보다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시스템의 핵심 기능은 대학 운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데이터 웨어하우스(DW)를 기반으로 수행된다. 현재 K-DX는 ▲연구 ▲학사 ▲일반 ▲임포트로 구성된 총 143개의 데이터마트(DM)를

구축해 방대한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연구현황, 교육여건, 일반현황 등 핵심 지표를 대시보드 형태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DX추진단은 "통합 대시보드를 통해 정보 접근성이 개선되고, 투명한 성과관리와 전략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식 오픈 이후에도 예측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 등 고급 분석 기능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AI를 활용한 지능형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DX추진단은 "143개의 DM에서 시작해 대학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 분석 시스템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K-DX를 통한 데이터 기반 대학운영의 정착은 교육과정 개선 및 학생 지원 정책 혁신, 연구 지원 체계의 개선 등을 견인하며 대학 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본관, 역사가 된 경희 건축물

경희기록관 남기원

경희의유산⑩  
「서울캠퍼스 본관1」

서울캠퍼스 본관이 올해 완공 70주년을 맞는다. 지난 70년간 수많은 건물이 캠퍼스 곳곳에 세워졌지만, 여전히 본관은 역사적, 미학적, 상징적 의미에서 경희 최고의 건축물이다. 등용문을 통과해 교시탑을 지나서야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도록 한 공간 배치 또한 본관이 경희의 중심임을 의미한다. 이렇듯 본관이 경희를

대표하는 건축물인 이유는 시작부터 그렇게 구상되었기 때문이다.

본관 공사는 1953년 11월 24일 기공식을 거행하며 시작되었다. 한국 전쟁 3년 동안 머물렀던 피난지 부산을 뒤로하고 회기동 일대를 교지로 정한 직후였다. 부산 임시교사 시절에 정립한 경희의 이상을 펼칠만한 교지를 선택한 후 처음 세우는 건물이자, 경희의 사명과 미래를 담아야 기획하고 구현한 사실상 최초의 건물이 바로 본관이다. 그러므로 '본관 기공식'은 단지 하나의 건물을 세우는 행사가 아니었다. 경희의 새출발, 새 역사를 알리는 '비전 선포식'이었다.

이러한 의미와 상징을 생각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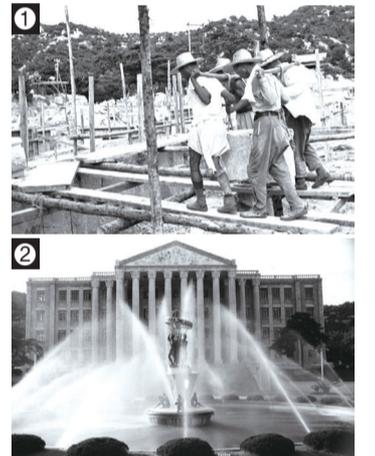
숭고하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의 그리스 신전식(神殿式) 석조건물을 본관의 건축양식으로 선택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었다. 고향산에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되던 채석장이 있어 석재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4층 높이 3,800평 규모의 웅장한 석조건물을 순수 우리 기술로 짓겠다는 계획은 당시 형편을 생각할 때 무모한 사업이 분명했다. 정부도 제대로 된 청사 하나 갖지 못한 가난한 나라에서, 작고 가난한 신생대학이 이런 웅장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웠다.

재정이 가장 큰 어려움이였다. 수

억이 드는 공사비에 비해 학교의 잔고는 불과 8만 환에 불과했다. 경험과 기술도 문제였다. 우리나라에서 석조 건물 공사를 외국 기술의 도움 없이 시행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기초공사 기술이 부족해 공사가 지체되는 일이 빈번했다. 석재를 운반하는 수단이 없어 통나무와 수레 같은 원시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했다. 기중기가 마땅치 않아 공사장 근처로 운반된 석재를 인부들이 목도를 매고 한층한층 쌓아 올려야 했다.

1956년 8월 20일 드디어 본관이 완공되었다. 경희의 역사와 함께 할 건물, 미래에 시선을 두고 어려움에 굴하지 않는 경희의 정신을 상징하는 건물로서 이후 경희인의 자랑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2018년 12월, 본관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건축 양식과 미학적 측면에서 역사에 남을 문화재로 인정받은



①완공일만 기준으로 하면 1954년 3월 22일에 완공된 신문방송국 건물이 가장 이릅니다. ②웅장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지만 지금과 비교하면 훨씬 작았다. 본관은 1975년 증축 공사로 양쪽 날개가 확장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것이다. 이제 본관은 경희를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가 된 것이다.



Instagram

대학주보 @khunews\_jubo



KHUNews\_JUBO

인스타그램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메라로 QR 스캔 → 채널 팔로우